

무등일보 연중캠페인
해양쓰레기를 줄이자

해양쓰레기 ZERO!

해양쓰레기 발생원인

하천과 강을 통해
바다로 들어옵니다.



장마철 집중호우나 태풍이 지나간 후 육지에서 버려진 쓰레기 혹은 방치된 물건들이 하천과 강을 통해 바다로 들어옵니다. 부피가 작고 가벼운 것(PET병, 일회용 용기 등)들은 수시로 바람에 날리거나 배수로를 거쳐 바다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연안 지역 주민, 해변 관광객 등이 버린 쓰레기가 바다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상활동 중에도
바다로 들어옵니다.



어업용, 낚시용 선박 등에서 어망, 어구의 유실되거나 여객선, 화물선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를 해양으로 투기할 경우 해양쓰레기가 됩니다. 양식장의 경우, 시설이나 어구를 교체할 때에, 태풍과 강풍으로 인해 떨어져 나가면서 해양쓰레기가 되기도 합니다.

해양쓰레기는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해양쓰레기는 더 이상 일부 시군,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계절풍과 해류를 타고 해양쓰레기는 타 지역, 국가로 이동하며 해양 생태계 오염과 경관 훼손을 발생합니다.